

빛과 색의 향연...화폭서 희망과 생명력 발견

우제길미술관은 2025년 특별기획전 '우제길: The Blooming'전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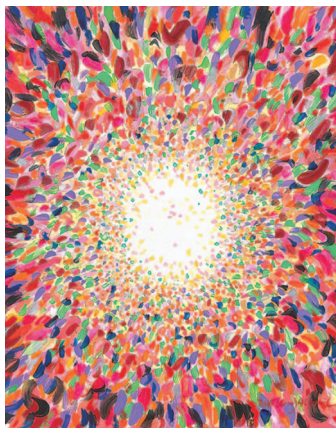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우제길(83) 추상화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그의 '꽃빛' 시리즈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을 보여준다. 박경식, 김민경 큐레이터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우제길 화백의 작품 속 미학적인 깊이와 주제의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전시는 꽃이 피어나는 찰나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흐름에 주목해 두 시기로 나눠 선보인다. 1부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2부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계절의 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시 구성을 했으며, 봉오리에서 만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처럼, 생명의 리듬과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변화를 보다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는 아크릴, 유화, 한지 콜라주, 판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매체와 스타일을 넘나들며 폭넓은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중에서도 '꽃빛' 시리즈는 빛과 생명, 자연의 순환을 응축한 대표적인 작품군으로, 이번 전시는 이러한 '꽃빛' 회화의 여정을 집중 조명한다.

"The Blooming"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이 전시는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존재와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안겨준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작가의 '꽃빛' 시리즈는 기존의 직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꽃잎이 흠날리듯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피어난다. 이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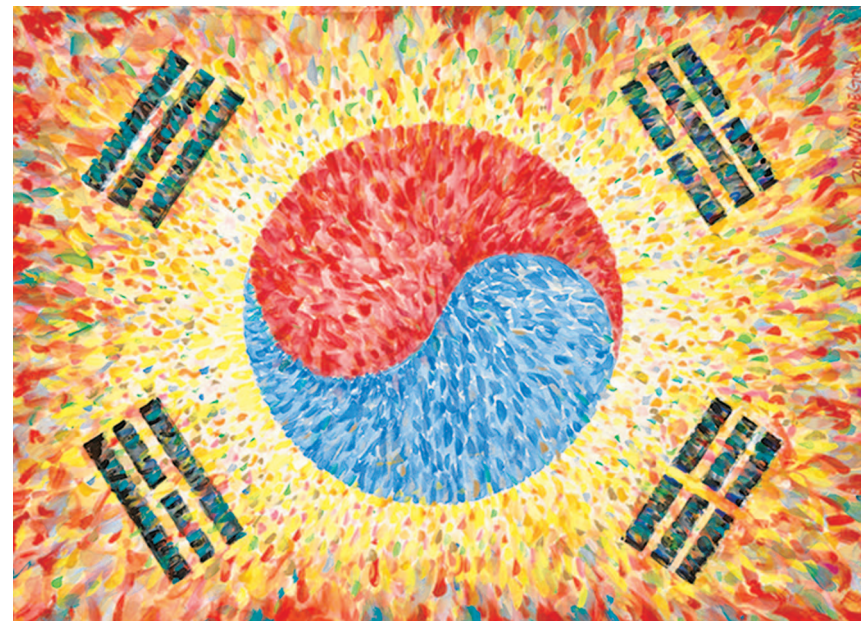
'우제길: The Blooming'전 내달 29일까지 2부 구성 꽃빛 시리즈...회화 여정 집중 조명



'2015-Flower-A-13B'



'2014-Flower-A-10A'



'2015-Flower-A-나라사랑'

품들은 자연의 순환과 희망,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로 빛과 색으로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준다.

'꽃빛' 시리즈는 단순히 색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빛'에 대한 깊은 생각과 탐구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그의 작품 속 빛은 정지된 배경에 있지 않고, 계속 확산되며 관람객을 작품의 깊은 곳으로 이끈다. 중앙으로 모여드는 밝은 빛은 마치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는 작품을 완성한 후에도 계속 연구하고 성찰해 빛과 색이 더욱 강하게 울리는 효과를 만들어간다.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자연이 주는 에너

지를 작품 속에 담았다. 꽃이 봉오리에서 만개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림과 설치 작품들은 삶에서 반복되는 시작, 성장, 결실의 순간들을 상징한다.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연결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생명과 빛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전망이다. 색과 빛의 확산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은 깊은 생각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며, 자연의 흐름과 함께 희망과 재생, 강한 생명력을 전달한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시간, 빛, 온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우러져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자연

의 섬세한 조화를 표현한 작품들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우리 모두 내면에 숨어있는 '피어나다'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The Blooming"은 단순히 봄날의 꽃잔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간의 정신과 자연의 순환을 함께 이야기한다.

우제길미술관 김치순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빛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품이 전하는 감동과 메시지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모두의 내면에서 또 하나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음악으로 기억하는 저항·희생

광주시향 '형제들' 30일 광주예당

광주시립교향악단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을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번 연주회의 부제 '형제들'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연대와 희생을 상징한다. 민주와 자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섰던 시민들은 서로에게 방패가 됐고, 어깨를 나란히 한 순간들은 혈연 이상의 끈끈한 '시민의 형제애'로 기억된다. 광주시향은 이번 무대에 깊은 울림을 담아 형제애와 저항의 서사를 풀어낼 예정이다.

첫 순서는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의 '형제들' (Fratres)이 장식한다. 파트트 특유의 틴티나불리(tintinnabuli) 기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내면의 울림과 영적 연대를 형성화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즉 공동체적 결속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내기에 더없이 적합한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9번 D단조'다. 인간의 고통과 구원,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장대한 오케스트라 언어로 풀어낸 이 작품은 미완이지만 오히려 그 미완성의 형식 자체가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강하게 부각한다.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은 역사적 상처를 마주하는 동시에 그 너머의 치유를 모색하는 광주의 현재와 맞닿는다. 비록 미완이지만 그 마무리를 청중의 해석에 맡기며 여운을 남기는 이 작품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은 '기억의 책임'을 암묵적으로 요청한다. 지휘는 광주시향의 예술감독 이병욱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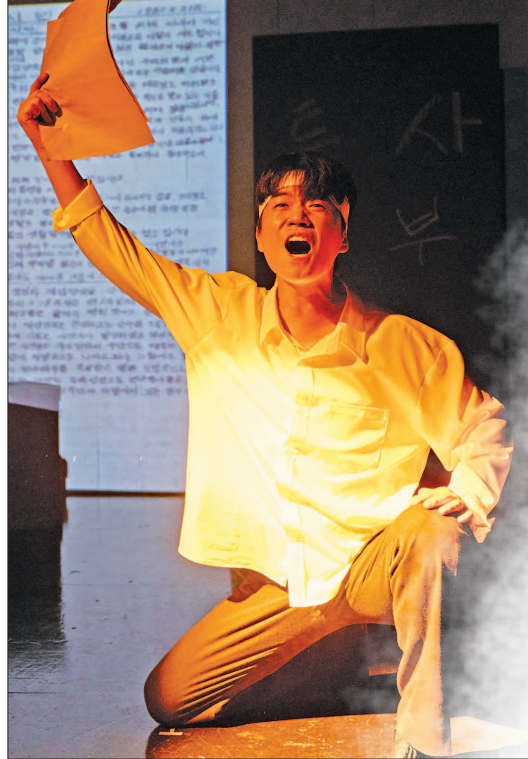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생부터 입장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613-8241.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투사회보 기록' 청년 박용준 이야기



80년 5월 투사회보를 필경했던 스물다섯 청년 박용준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오월 연극이 선보인다.

극단 토박이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연 '오월휴먼시리즈-광천동 청년 용준씨'를 23일 오후 7시30분과 24일 오후 3시 등 두 민들레소극장에서 연다.

극단 토박이의 오월휴먼시리즈 첫번째 연극 '광천동 청년 용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투사회보를 필경했던 스물다섯 고아 청년 박용준의 이야기다. 모든 언론이 80년 5월 광주를 불순분자들의 소요사태라고 거짓 보도할 때 박용준은 뾰족한 쇠철필로 투사회보에 참혹한 역사를 또렷이 새겼다. 수천장의 투사회보를 쓴 그의 손은 살갗이 벗겨지고 통통 부었지만, 5월 27일 총을 들고 자신을 진심으로 보듬어 안아준 광천동 형들과 죽음으로 향했다.

극의 줄거리는 이렇다. 1978년 들불야학 단합대회에서 용준과 상원, 영철 등 여러 야학생들은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고아인 용준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협 교도원에 취직하고, 영철은 잡잘 곳조차 없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기꺼이 가족으로 맞이한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가족의 품에서 용준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1980년 비극이 찾아오면서 평온한 일상이 깨진다.

'광천동 청년 용준씨'는 불운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 박용준이 꿈꾼 세상과 그와 함께한 광천동 사람들의 순결성 그리고 투사회보가 이후 세대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숭고한 인간애를 그린 작품이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내는 또 다

극단 토박이 '광천동 청년 용준씨' 23~24일 민들레소극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연...투사회보와 민주화 가치 조명

른 '나'라는 분신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에 잠재된 상처, 불신, 갈등, 희망 등의 심리와 스물다섯 청년이 두려움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들고 항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투사회보 1호부터 10호의 내용을 인형이나 가면, 미니어처, 깃발 등 상징화된 사물과 음악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구현한 점도 특징이다.

작·연출은 박정운, 구성은 극단 토박이, 음악은 박성연이 맡았다. 박용준役に 김영택, 박용준그림자役に 고영욱, 김영철役に 김정훈, 윤상원役に 박정운, 김영철 아내役に 임해정, 영심이役に 최혜민 등이 출연한다.

공연 입장료는 일반·대학생 1만5000원, 청소년·단체(10인 이상) 1만원. 문의 062-222-6280.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농협